제6장 외교통상부 혁신



1. 개 관

최근 우리 외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북핵문제, FTA, 영토문제, 역사문제 등 국가 장래를 결정할 주요한 외교 현안이 대두하고, 개발원조, 인권, 환경 등 국가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참여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연간 해외여행객 수가 1천2백만명을 돌파하면서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외교인력의 전문성 및 조직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같은 새로운 외교환경과 외교업무 수요에 맞는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인사 · 조직 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005년 1월에 발족한 '외교통상부 혁신추진위원회'를 200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15개 과제에 대한 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외부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한 '외교통상부 혁신추진위원회'에서는 재외공관장 개방 등 임용제도 개선, 고위직 신분보장 완화, 장관과 공관장간 성과이행계약서 체결, 영사인력의 재편 및 전문성 강화, 경제통상 수요에 따른 인력 및 기능 재조정, 주재관 제도의 개편 등을 논의하며 외교통상부가 선진 외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 · 조직 분야 혁신을 주도하였다.

한편, 외교통상부 차원의 외교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외교역량강화를 위해 2005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범정부 외교역량강화 T/F를 구성, 운영하면서 국가 외교역량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해 오고 있다.

2. 지속적인 인사혁신

외교통상부는 민간 및 관계부처 전문인력에 대한 문호를 확대 개방하여 외교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공관장 임용제도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재외공관장 직위를 개방 대상으로 하고,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에 대한 영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자격과 능력을 갖춘 외부인사를 적극적으로 발탁하고 있다.

또한, 2007년 4월에는 외무공무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특정직으로서는 최초로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외무공무원이 민간 및 일반 부처와 적극적이고 다양한 인적 교류를 함으로써 새로운 전문성을 축적하고 업무시야를 넓힐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관 부처와의 원활한 정책조율 및 민간과의 순기능적 의사소통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개방과 경쟁'을 통해 부내 경쟁분위기 확산, 자기개발 노력 등 긍정적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외교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외부인사들을 적극 영입함으로써 대국민 외교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경륜있는 외교관의 국제업무 노하우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국제화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 역량평가, 인사심사, 직무등급배정 등에 있어 외교업무의 특수성 및 직업외교관제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직업외교관제의 근간 위에서 외교역량을 최대한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하반기 외교부 특별채용 포스터

이외에도 외교통상부는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우수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외국어 및 통상 전문인력을 꾸준히 특별 채용(2004년 1월~2007년 8월간 총 187명)하는 등 인재 충원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2007년 하반기에는 언어, 법률, 지역협력, 다자협력,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 190여명을 외부에서 채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는 2006년 6월 재외공관 주재관임용령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각 부처 공무원을 해외공관에 파견하는 주재관 제도를 대폭 개편

하였다. 새로운 주재관 제도는 전 부처 공무원 대상 직위공모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발심사 등을 통해 개방과 경쟁 원칙을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주재관 제도를 마련한 2006년 하반기 이후 외교통상부는 2007년 8월까지 정기 및 수시공모를 통해 총 117개 직위 주재관을 선발하였고, 공모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주재관 응모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경쟁시스템 도입에 따라 일부 직위의 경우 경쟁률이 7:1에 달하거나, 현직자와는 다른 부처 출신 응모자가 최종 선발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또한 전 부처 공모 실시로 각 부처에서 내부 절차를 통해 최적임자를 응모자로 추천하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주재관 선발자들의 업무전문성 및 어학능력 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새로운 주재관 제도는 공모 선발자 배출을 위한 각 부처간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재관 개개인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개방과 경쟁'을 통한 외교역량, 나아가 정부역량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더불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주재관 개개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선발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인력 운용 측면에서도 주재관 근무자들이 유사 분야별로 통합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인적 자원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주재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소속 부처에 상관없이 최적임자가 주재관 직위에 보임될 수 있는 공모제도의 취지를 살려 나갈 계획이다.



2007년 추계 재외공관 부임자(주재관 포함) 선서식

3.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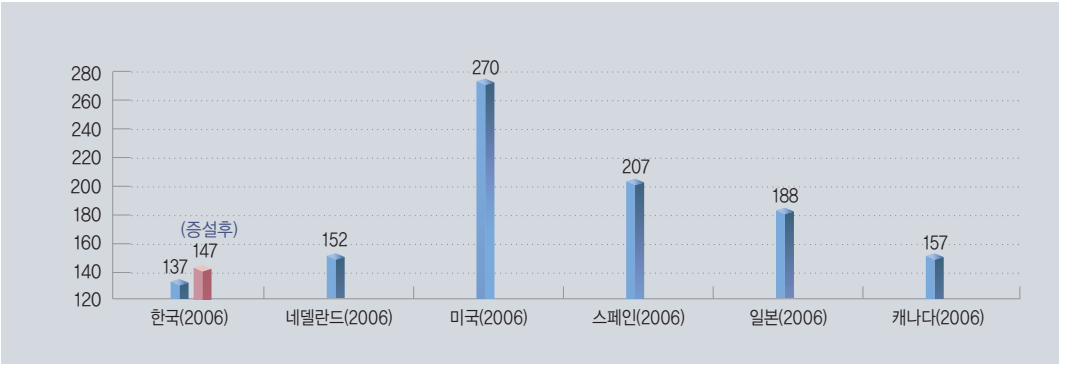
외교통상부는 2006년 3월에 북한 핵문제, FTA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와 한미자유무역협정기획단을 설치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활동 지원 및 재외국민 보호 등 현장 중심의 외교력 강화를 위해 슬로바키아, 아제르바이잔, 온두라스 등 3개국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터키 이스탄불 및 중국 시안 지역에 총영사관을 설치하였다.

2007년도에는 대국민 서비스 강화, 새로운 외교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제 수립, 그리고 외교통상부 조직 체질 개선을 통한 내부 효율성 강화에 주안점을 둔 대폭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우선 연간 해외여행객 1천 2백만명, 재외동포 670만명 시대를 맞아 납치, 테러 및 자연재해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사건 ·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영사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7년 7월 기존의 328명(해외여행객 10만명당 2.7명)에 불과하였던 영사인력을 419명(해외여행객 10만명당 3.4명) 수준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 증대에 따라 주요 거점 지역인 두바이, 밀라노, 함부르크, 젯다 등 4개 지역에 2007년 하반기 중 총영사관을 개설할 예정이다.

변화된 외교환경에 맞게 1980년대부터 유지해 오던 외교통상부 본부 조직의 기본틀도 대폭 변경하였다. 유엔사무총장 배출 등의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인권, 공적개발원조(ODA), 평화유지활동(PKO) 등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와 역할을 수행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교정책실'을 '다자외교실'로 개편하였다. 또한 ODA 규모 확대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ODA의 집행 ·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다자외교실' 내에 '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하였다. 중국, 인도의 급부상,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지역의 중요성 증대 등 역내 외교환경 변화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국'을 '동북아시아국' 및 '남아시아대양주국'으로 분리하였으며, 평화체제 협상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평화체제교섭기획단'도 본격 가동하게 되었다.

주요국가의 재외공관수 비교



아울러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및 신흥시장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재외공관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제2의 산유국인 앙골라를 비롯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예멘, 크로아티아, 니카라과, 벨로루시 등 6개국에 2007년 하반기 중 대사관을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급증하는 FTA 관련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국을 자유무역협정추진단으로 확대 · 개편하여 FTA 협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교통상부는 급변하는 외교 환경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고 국가 위상에 걸맞은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21세기형 선진 외교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